부자도 가난뱅이도 구원 없다

(마19:16~30)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자도 가난뱅이도 구원 없다'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구원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밝혀 두자면, 돈은 있어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가난뱅이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면 구원 없습니다, 가난뱅이에게도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생후 4개월부터 18개월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을, 아동정신분석학자들은 구순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순기의 특징은 전부다 입으로 가져다 빠는 거예요.

담요를 덮어 주면 아이가 담요를 입에 물고 빨면서 잠을 자고, 인형을 주면 인형 귀를 입에 물고 빨면서 놀고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이 구순기에 접한 아이들이 입에 물고 있는 모든 물건을 자기 자아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마 젖을 빨고 있으면, 그 엄마 젖이 자아의 연장인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담요를 빨면 그 담요가 자아와 구별되는 다른 대상이라는 거를 애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아기들이 그냥 담요도 자기 자신의 연장인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심리상태를, 도대체 대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관계하느냐? 라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게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이라 그럽니다, 대상관계.

그래서 이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입으로 모든 걸 다 빨려고 하는 구순기에, 빨고 있는 물건이 자아와 다른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대상을 이행대상이라 그래요, 이행대상.
그러니까 그 이행대상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 그게 자아의 연장인줄 안다 이거죠.
이러면서 자아의 내용이 채워집니다, 이게 자아 팽창이에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이가 담요를 빠느냐? 마음의 쾌감을 위해서다,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다'
근데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은 어떻게 그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인간은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담요를 빠는 게 아니고, 구순기에 해당될 때에 원래 대상을 향하도록 본능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만족이라는, 내 만족을 위해서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 대상을 향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만족을 위해서 대상을 찾든, 만족과는 상관없이 대상을 향하게 되어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끔 되기 위해서 속이 비어진 상태로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아를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향하게 되고 채우게 되지요.

그러면 부자는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하면, 구순기의 상태가 성인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요를 빨지 않고, 인형을 빨지 않고, 엄마 젖을 빨지 않는 것뿐이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은 구순기 때와 마찬가지로, 생후 4개월부터 18개월 되는 어린아이, 애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입에 물고 빨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이 있는 상황, 돈을 담요 빨듯이 빨면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가난뱅이는 뭡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이 없는 상황 이것을 입으로 물면서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향하고 있는 마음은 똑같아요, 가난뱅이나 부자나.
단지 부자는 돈이 있는 상황이라는 담요를 빨면서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난뱅이는 돈이 없는 상황을 입에 물고 빨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담요를 빨듯이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치를, 입에 물고 빨면서 자아가 되고 있는 동안에, 바늘귀 앞에 서있는 낙타라 이겁니다.
어렵다고 돌려서들 말씀하시지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가혹하게 여겨지고 엄격하게 여겨지니까, 이 성경을 주석한 학자들은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 문이 두개 있었다, 큰 대문이 있었고 예루살렘성에, 그리고 밤이 되면 닫아두고 사람만 겨우 출입하게 할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별명이 바늘귀 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바늘귀 문도 낙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부자인 채로, 가난뱅이인 채로 그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뱅이라는 자리에서 떨쳐내시고, 부자라는 자리에서 이탈시키신 뒤에, 부자라는 의식도 없고, 가난뱅이라는 자아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시키신다는 얘기이지, 가난뱅이인 채로 부자인 채로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부자는 천국 문 앞에서 낙타가 돼버리고, 상대적으로 천국 문은 이 낙타와 같이 커져 버린 부자에게 있어서 바늘귀와 같이 작은 문이 되어버리고 말까요?
그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제자들의 반응을 봐요.
부자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 그래요 '몹시 놀랐다'
왜 몹시 놀라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 몹시 놀랍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도 모두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루고 싶었던 게,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며 이루려고 하는 그 부자의 상태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누가?
당연하지요, 사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율법에 근거돼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 묵계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선민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부자라면 그러면 그는 구원 받았다는 증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면, 그것이 바로 구원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돈이 많이 갖고 부자로 산다는 것은…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면 벼슬까지 한 사람이고 존경 받는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등사윗감이죠, 사윗감 영순위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갖고 와서 고민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대사회 내에서는 사치스러운 얘기이고 불필요한 얘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산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예뻐하고 계셔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것은 '아이구~ 복 받았어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최고의 가치를 다 몸에 지닌 사람에 대해서, '가난뱅이가 되지 아니하면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구제를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으로부터 돈을 떼어 내라'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자가 되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낙타가 바늘귀 앞에 섰을 때와 같아질 정도로 몸집이 커지는 겁니까?
'물 대기'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 대기'의 원리.
여러분 물먹은 소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물 먹은 소.
얼마 전에도 또 34,000 마리나 물 먹여서 팔았던 범인들이 붙잡혔어요.
물 먹일 때 어떻게 먹이는지 아십니까?
강력 물 펌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에다가 이 칼로 상처를 내갖고, 핏줄에다 대고 강력 물 펌프를 호수로 끼어 넣습니다, 호수를 끼어 넣은 다음에 강력 물 펌프를 가동시켜서, 20초만 해야 되요, 안 그러면 큰 일 나요, 터져 버려요 다.
20초 동안에 40리터의 물을 강력 물 펌프로 콱-콱콱콱 집어넣습니다.
40리터를 집어넣으면 20킬로그램이 늘어나는데, 소가 20킬로그램이 늘어나게 되면 한 마리당 33만원을 더 받아요, 그래서 34,000마리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를 더 부당으로 이익을 취했느냐?
물 먹여 가지고 20킬로그램을 늘려서 마리당 33만원 더 받으면서 119억,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119억을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소에게 물 먹여 가지고.
요새는 소만 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새우살도 물 먹여요. 냉동식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로 얼려요 얼린데 물을 붙여서 또 얼려요. 그래서 새우 한 마리가 보통 200그램 정도 되는 것이 500그램 가까운 새우가 되어 버립니다. 아!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돈 아닙니까, 돈이 마음에 닿지요, 마음이 돈에 닿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소 힘줄에다 강력 펌프에 연결된 호수를 갖다 끼우고 물을 먹이듯이, 이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것은 마음에 닿기만 하면, 그 마음에다가 물을 먹여서 자아를 팽창시키게 됩니다.
원래 사람의 자아는 빈 채로 나오는 거예요, 빈 채로.
뭔가 대상을 통하여 그 속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놈이 마음에 닿으면, 그 자아 속에다가 자아의 빈껍데기 속에다가 내용을 채워 넣는데, 그렇게 채워져서 자아가 팽창돼서 만들어지는 게 자아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놈이 물 먹이듯이, 자아의 빈껍데기 속에 의식을 집어넣어서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나는 부자다, 나는 돈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생길 때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자아가 팽창이 돼가지고 부자라는 의식으로 팽창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문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팽창된 자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니까, 내 본래 모습이 아닌데,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본래 나의 모습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뱅이도 마찬가지에요,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을 입으로 빨면서, 내가 가난뱅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으로, 내 자아의식의 껍데기를 채워 넣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의식을 주님께서 영역을 확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은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 정도 항목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으로 관계하는 모든 대상을 다 얘기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어쨌든 세상에서 내 마음이 관계하게 되는 모든 대상을 말하게 됩니다, 돈 뿐만이 아니라.
그럼 왜 이걸 다 버리라고 얘길 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대상이던지 내가 마음으로 연결이 되게 될 경우에, 내 마음에 자아의식을 넣어줘요.
형제가 내 마음에 자아의식을 팽창시켜서 자아의식을 넣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나는 형이거나 동생이 됩니다.

또 누나거나 뭐 언니거나, 또 부모라고 하는 관계, 부모라는 대상이 마음에 닿으면 '나'라는 자아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들딸이라는 자아의식으로 채워 넣고, 또 내 자식들을 대상으로 삼고 관계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부모라는 자아의식을 팽창시켜 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왜 버리라 그러느냐?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로 자아가 팽창된 상태로서는 나는 아버지로 팽창되고, 엄마로 팽창되고, 자식으로 팽창되고, 부자라는 의식으로 팽창이 되고, 가난뱅이라는 의식으로 팽창이 되던, 무엇으로든지 이 세상의 상태, 상황, 대상, 관계 사람으로 의해서 내 자아의식이 팽창된 그런 자아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하시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까지 가실 거니까.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이 물 먹인 내 자아의식이 팽창된 상태에서 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못으로 찔러 빼내고, 가시로 찔러 빼내고, 창으로 찔러 빼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맞아 못에 찔려 피를 흘리시고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신 것처럼, 완전히 내 자아의식이, 세상의 대상에 의해서 팽창된 자아가 완전히 물이 다 빠져나가서 빈껍데기만 남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사도바울의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도 자아의식이 팽창되지 않는다, 자식을 앞에 두고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다'라는 '아버지'라는 의식팽창이 죽어버린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요.
돈이 있다고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나는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자식이 있다고 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고 내가 자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살려 주실 때, 태어난 아기가 담요를 빨듯이 마음의 입에 물고 빨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하나님으로 내 자아의 주머니가 팽창됐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 이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유일하게 진정한 '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뒤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강림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순절 강림사건이 바람처럼 임했다 그래요, 바람처럼.
하늘의 바람이 그들을 채울 때,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래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모습의 베드로가 되는 거고, 요한도 그 모습에 요한이 된 거고, 사도 바울도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세상의 대상에 의해서 물 먹는, 세상에 물 먹은 그런 소 같은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 바람으로 채워져서, 진정한 '나'로 내가 나를 찾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부자는 되지 마세요.
부자가 안 되려면 그 돈에 대해 죽으세요.
그 돈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세상을 향하여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절대 돈이 있다고 그 마음대로 사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그 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쓰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왜? 부자가 되셨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없어요.
가난뱅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무개의 아버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떠어떠한 집을 갖고 있는 소유주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누구의 딸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세상이 내 마음에 불어넣은, 그래서 팽창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과 가시와 창에 의해서 찔려서 찢기고 죽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팽창되어진 자아, 그럼 팽창이라기보다는 자아확장이라고 할까요?
자아를 되찾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자아만이 내 자식과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전토와 내 재산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로 관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부자도 가난뱅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마음에 물 먹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 죽게 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자아의식이 팽창되고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